

십자가와 부활의 전제조건, 성육신

손봉호

(대표주간)



서양 속담에 “애기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리지는 말라”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란 것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려다가 핵심적인 것 까지 버리는 오류를 경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크리스마스에는 애기는 아예 온데간데 없고 목욕물만 출렁거린다. 이름만 “그리스도 미사” (Christmas)지 “그리스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선물이 넘쳐난다. 네덜란드 등 몇 나라에서 12월 6일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신터클라스 (Sinterklaas) 행사가 있었는데 동방박사의 선물 이야기와 연결되어 크리스마스와 합쳐지고 그리스도 대신 산타클라스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숭배한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 대신 차라리 동방교회처럼 1월 6일로 지키자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어차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동안 1월 2일 혹은 6일, 3월 25일, 4월 20일 혹은 21일, 5월 20일, 8월 28일, 11월 17일 혹은 20일 등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거론되었다.

성경도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복음서들은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등 예수님 생애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다른 책도 언급하지 않는다.

너무 세속화되었고 성경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니 교회는 아예 크리스마스와는 거리를 둘 것인가? 애기는 없고 애기를 씻긴 목욕물만 남았다 해서 목욕물조차도 버릴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니다.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크리스마스는 이제 전 인류의 마음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축제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 일부 불교 국가들, 그리고 일본, 중국, 북한 등 34개국에 불과하다. 기독교적 전통이 없는 싱가포르나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선물 교환, 카드 보내기 등의 풍속이 자리 잡았고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기간이 되었으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선물 교환이 이뤄져 상가가 흥청거린다. 비록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사랑, 선물, 평화, 감사를 생각하는 계절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런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세계 어느 다른 종교에도 사랑, 평화, 감사를 크리스마스처럼 생각하게 하는 축제는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됐다 해서 깡그리 무시해 버리거나 성탄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대로 두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날을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한다.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아마도 누가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시대의 사상을 지배했던 헬레니즘은 철저한 이원론이었다.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체를 포함한 물질적인 것은 비천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에게 신은 정신적인 것의 최고봉으로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신은 물질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신의 품격에 걸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어리석음의 극치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누가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복음의 독특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아바고에서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토론했을 때도 그들은 바울 설교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행 17:32). 육신의 부활은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원론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도 마찬가지다. 마가, 요한, 바울 등 신약성경의 다른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성육신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구체화되고 십자가의 대속적(代贖的) 죽음과 부활이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탄생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시공간의 세계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불교나 힌두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갓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시고

세계 어느 다른 종교에도
사랑, 평화, 감사를 크리스마스처럼
생각하게 하는 축제일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됐다 해서 깡그리 무시해 버리거나
성탄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대로 두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날을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한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를 잘 대변한다. 비록 죄가 많고 불완전하며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중요한 마당이다. 종교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유교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만큼 이 시공간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의 무대로 삼는 종교는 없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가운데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자연과학, 민주화 등 인류문화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성탄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성육신, 즉 임마누엘에 그 근거가 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하고 찬양하였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것이 영광이라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다. 진정한 평화는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능하다. 성육신 자체가 이미 예수님 편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 고난은 곧 사랑의 희생이다.

성탄의 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고귀한 의미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되 돈과 권력으로 찌들은 세상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므로 타락한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고 고귀한 성탄절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